통일운동 민중투쟁과 연계해야

민중 스스로 통일의 방법 찾을때

2학기의 시작, 가을의 문턱, 너무나도 길었고 더뒤던 여름방학이 기억에도의 잠임등 현재 학원의 모습 속에서도 위의 전제는 그 의의를 여전한 손실당하지 않는다.

지난 여름,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의 상으로서 범민족대회 참가는 아직까지 나의 머릿속에 깊히 남아있다.

점점의 온갖 이데올로기적 공세, 불리적 탄압, 전대협 중앙간부 구속의 와조건 속에서도 범민족대회는 서울대에서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함해서 2만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민족분단이라는 한계, 국가보안법 현존이란 비민주적 현실, 아산가족의 아픔, 미국의 압국적인 강한 내정간섭 등등을 이해하고 분노하며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들은 연방제 통일뿐이란 하나의 대안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것을 하나의 축제로서 아니라 현시기 우리 운동의 발전선상 속에서 보다 폭넓고 만중들에게 가혜지는 차례의 사슬을 제거하려는 운동으로,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올바른 통일투쟁과 그만이 엄정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기간의 통일운동을 민중투쟁과의 분리성상에서 비라 보았던 지금까지의 시각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함을 느꼈다.

통일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 계획·예를 들면 위의 연방제·을 세울 때에는 선차적으로 민중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정서, 경험을 파악해야 하며, 민중들과 우리들의 의식을 정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로의 '논리'의 교류·개입이 필수적이다.

현재 통일에 대한 방법으로서 노태우정권의 한민족공동체론과 연방제 통일만이 이야기 되고 있는 정은 '북한 비로 알기 운동'이 채 자리잡히지도 않은 상황아래서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는 아닐까?

우리가 만약에 승리하는 싸움을 원한다면, 먼저 민중들 스스로가 통일의 방법들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투쟁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으로서의 전환이나, 군비축소, 반핵, 이산가족상봉 투쟁으로서의 전환이나, 물론 연방제는 '만들어 나아가는 형태' 로서의 통일방안으로 지금까지 통일투쟁속에서 얻어진 고통과 경험들서 자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때에 따라(민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되지 못하였을 때) 과오에게 도움이 되는 4천만 민중들의 삶에 담겨진 차례의 쇠사슬을 제거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SF 소설가가 아닌 철저한 과학자이어야 하는 것이다. 현실 민중들의 통일요구를 간과하지 않으며,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한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20년의 환소가 이끄는 우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소도 모는 사람도 검도, 방향도 아닐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선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리라의 환소가 이끄는 우마차에 대한 성사진이 아닐까?

조 선 아
〈철학 · 3〉

힘들지만 보람있는 농활

농촌 현실 가슴으로 느껴

순창에서의 여름을 잊지 못한다. 열흘의 기간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경험들이 나에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출발전 사전 교양강좌를 통해 농활이라는 활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선배 동기들과 이야기해보면서 나는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 선배들의 무용담과 '잘 해야지' 라는 결의를 가지고 갔던 나는 첫날부터 김도 높은 작업에 허우적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당의 늦은이면 공원을 옮는다고 학생회장형을 복장터지게 했던 내 낙심도 3일 작업을 기점으로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도움이 되고있다는 생각에 흐뭇했다. 나를 포함한 '환상의 밥조' 의 환상적인 생활을 쌓는 이야기부터 거꾸로 낙질을 했다 해서 붙인 '7·2 낙 보육사건', 농민분들과 친해지기 위해 의식적으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고추가 주렁 주렁 달렸는데 무슨 나무냐고 물어보더라' 는 무색한 질잔에 이르기까지 두고두고 못 잊을 에피소드가 속출했다.

7월5일의 면대항 운동회! 주민이 적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우리마을은 무여곡절끝에 돼지잡기 경기에서 당당히 우승하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틈고 경운기속에서 동민가를 부르며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다.

더디게 갈 것같던 열흘을 보내고 마을분들과 헤어지려니 허전하고 서운했다. 내장산에서의 밤 캠핑가를 하며 열흘을 돌이켜보았다.

광주분 이사:는 얘회비, 노구를 이끌고 본으로 향했는 동네 할아버지, 매일 반찬거리며 빈대떡이며를 가져오시면서 일을 부탁하시던 진남이 할머니 우리과 농활수행에 있어 확실한 Back ground 역할을 해주셨던 문환형과 형수님, 용오형 형수님, 그리고 외국농산물 수입를 한했으면 좋겠다던 대상리의 아이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잠이 들었다.

농민의 삶은 분명 '전원일기' 의 그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눠줄 줄알고 함께 할 줄 알고 분노할 줄 아는 가슴을 가졌다. 내일은 농활사진전도 하고 대상리 현식이에게 편지라도 쓸 계획이다.

신 중 식
〈정외 · 1〉

한국인의 긍지 고취하는 프로그램

조국순방 여름학교에 참여하여

만일 누군가 나에게 지금까지 가장 추억에 남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올해 1992년도 해외교포학생 조국순방여름학교에서 카운셀러로서 일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론 가장 최근의 일이기도 했지만, 내겐 무엇보다도 보람있었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대학주보에 실린 카운셀러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 나는 다른 15명의 카운셀러와 함께 13개국에서 온 208명의 교포고등학생을 맡아, 조국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고, 한국인의 얼을 심어 주기 위한 행사의 일원으로 참가했었다.

수원캠퍼스의 기숙사 애지원을 교육본부 및 숙소로 사용했고, 체육관학대건물의 강의실과 체육관, 강당을 이용했다.

처음엔 좌편기가 없다고 불평하던 아이, 모기한테 물렸다고 짜증내던 아이, 그나마 점점스러 준비의 기숙사식당의 식사를 남기며 투정하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난 그때마다 그들에게 외국인이 교생스럽게 조국에 와서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가를 유태인과 중국의 화교들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우리가 떳떳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선 말과 글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조국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졸업식날 아이들이 건네준 카드의 "그동안 애마니 써서서 고맙습니다" 라는 서투른 글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주 동 필
〈법대 행정 · 4〉

'농활' 본연의 모습 찾을 수 없어

학생들의 안일한 자세 시정해야

내가 '허슬농활(?)' 을 했던 마을은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방림2리. 그 마을에서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한 곳은 다만 지주로 통하는 5가구뿐이었다. 호별 방문을 통해 일을 도와드리고 심다고 전해드려도 다른 분들은 한마디로 '필요없다' 였다. 사실 그 부모들은 그들의 논으로 일꾼을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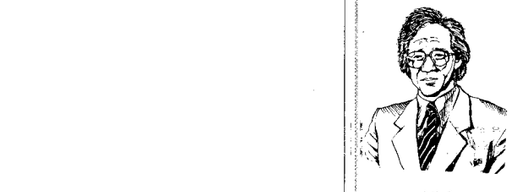
한번은 깊은 산골 마을인 방림3리에서 일손이 부족하니 학생들을 보내달라는 부탁이 왔다. 이 마을일도 거진 대략으니 남은 인력이나마 도와드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그 부호 어르신네들이 안되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이 마을이 학생들을 받았는데 해날에게 보내나는 것이다.

나는 마을 어른들을 탓하고자 하지 않는다. 모든 농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농촌은 변하고 있다. 그런 농촌의 변화를 무시한 채 농활을 해오는 우리 학생들을 탓하고 싶다.

경희 1만 학우여, 십분선생님의 '상록수' 에 나오는 초기농촌봉사활동의 고 순수했던 마음과 열정을 본받자. 학교에서 멀면 어떤가. 우리가 갈 곳이 없으면 어떤가. 진정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이 땅 어딘가에 있을게다. 찾자, 뛰자.

박 선 이
〈서반어 · 2〉

항상 진취적 기상으로 살아나가야



정 현 채
〈문리대 · 화학교수〉

교수생활에서 연구라는 과제가 없다면 너무 빨리 지쳐버릴 것이 틀림없다. 다행이 나에게는 연구가 신이나고 미래지향적이며, 또 무공해하고, 무한하고, 무소유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밝고 깨끗한 문명사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이 있어 연구할 때 마다 신이 난다. 나의 연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학생들과 더불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볼까 한다.

1. 시짜을 개척한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나는 미국 Utah주와 서부지대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 우리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영어연수도 하고 그곳 풍경을 답사하고 생활과 습관등을 배우는 동시에 사막에 오는 무진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법을 개발하고 있다. 머지않아 실현된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가뭄에도 태양전지 양수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태양열과 공기열을 흡수하는 온수제조기를 개발한다.

이연구는 우리나라 동자부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거의 실용단계에 와 있다. 보통 태양열 온수기는 해가 뜨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데 반해서 이 연구결과는 밤과 날을 가리지 않고 눈비가 와도 항상 온수가 얻어지고 국내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이점이다.

3. 양어장에서 얻중 계속 고기가 자랄 수 있도록 한다.

보통 물고기는 여름 한철에 자라고 겨울에는 동면을 한다. 그러나 수온을 태양열로 자동조절시켜서 물고기의 활동 조건을 만들어 주면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먹이를 잘 먹고 자라서 사계절 싱싱한 물고기가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두공해 연료 수소를 공전지에 의한 자하수 펌핑하는 법을 개발한다.

이미 기초연구를 해서 국제학회에 발표했고 그 효율향상에 새로운 정열을 쏟아가고 있다.

5. 태양전지와 그황산 기술의 응력을 이용 경희동산의 어두운 밤을 밝혀보려는 계획도 있다.

경희대학교에 밤에 와본 사람은 깜짝 놀랄 것이다. 밝은 사회를 그렇게 부르짖는 학교가 밤이 되면 온통 먹구름같은 어둠에 쌓여 있고 가로등도 거의 꺼져있다. 이는 전기료의 어려움 때문이다. 태양전지와 풍력발전을 이용하여 밤의 어두움을 물아내고 밤에도 밝고 활기찬 교수·학생의 진리탐구와 토론, 연극, 영화, 노래등 젊음이의 분방성 활동이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밝고 깨끗함에 대한 희망

항상 진취적 기상으로 살아나가야

태양전지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바꾸고 그 전기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시짜에 물을 뿌려 초원을 만들려는 꿈에 차 있다. 이미 그곳의 지하수 현황을 조사했고 유타 주정부의 에너지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 태양전지 및 풍력을 이용 비닷물을 분해하여 제조한다.

이는 인류 최종 소원이기도 한 무한한, 무공해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바닷물을 태양광에 의해 전기분해하여 얻어진 수소로 자동차 연료로 쓰면 자동차 매연대신 물이 연통에서 나와 먼지를 가라 앉게 할 것이다. 우리 경희대학교 부설 태양에너지 연구소에서 이미 기초연구를 해서 국제학회에 발표했고 그 효율향상에 새로운 정열을 쏟아가고 있다.

5. 태양전지와 그황산 기술의 풍력을 이용 경희동산의 어두운 밤을 밝혀보려는 계획도 있다.

경희대학교에 밤에 와본 사람은 깜짝 놀랄 것이다. 밝은 사회를 그렇게 부르짖는 학교가 밤이 되면 온통 먹구름같은 어둠에 쌓여 있고 가로등도 거의 꺼져있다. 이는 전기료의 어려움 때문이다. 태양전지와 풍력발전을 이용하여 밤의 어두움을 물아내고 밤에도 밝고 활기찬 교수·학생의 진리탐구와 토론, 연극, 영화, 노래등 젊음이의 분방성 활동이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좋은컴퓨터 만들기10년

NEWTEC

년전 저소음 FDD의 개발로 COMPUTER 업계를 깜짝 "" 했던 신성전자를 기억 하십니까? NEWTEC 은 바로 그 살아있는 정신 — 신성전자의 새 이름 입니다. 이처럼 세운상가 의 작은 컴퓨터 업체로 출발한 저희 뉴텍은 불과 10 년 남짓한 컴퓨터 역사의 산 증인 으로 부지런히 신기술 개발에만 전념 해 왔습니다. 그것은 보다 좋은 기술, 보다 합리적인 가격 으로 애호가들의 기대에 보답 하고 싶다는 우리들의 얼굴 이 남보다 강했던 탓이었습니다. 그 결과 뉴텍은 대덕연구단지에 을 설립, 중소기업 최초로 시스템 Q 마크를 획득하고, 뿐만 아니라 SVGA 카드 Q마크를 국내최초 로 받는 등 기술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소비자 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컴퓨터 전문회사 로 성장 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 뉴텍은 386에 이은 486의 싸가격혁명 을 다시 한번 합니다.

486DX-33 180만원 칼라모니터 포함, 부가세별도

●MODEL명 : MECCA 43d
●CPU : 80486 DX-33
●CACHE MEMORY : 256KB
●RAM : 4096KB
●FDD : 5.25"(1.2MB) 3.5"(1.44MB)
●HDD : 120MB
●VIDEO BOARD : 한글 SUPER VGA (해상도 : 1280X1024, 1024X768)
●VIDEO MEMORY : 1MB
●SLOT : 8 EA
●I/O PORT : 2SERIAL/1PARALLEL
●KEYBOARD : 101 KEYS
●MONITOR : 14"COLOR (해상도 : 1024X768, 0.28㎜)
●POWER : 220W
●MOUSE : BALL TYPE

제품문의및 소비자 상담실 706-0990(代) 전문무휴/오전9시~오후10시

뉴텍컴퓨터산업주식회사
본 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1
대표전화 : 703-4077
공 장 :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37-1

■서울 576-7749(서초구) 449-2602(송파구) 653-4858(양천구) 702-0488(동대문구) ●동수원 : 213-5308 ■인천 519-8247(북구) 867-6753(남구) ●부평 657-0838 ●구월 552-5500 ●만석 85-4008 ●간석 29-1419 ●평택 655-7458 ●수원 253-9002 ●안양 21-6911 45-0345 ●의정부 42-8255 ●포천 535-0551 ●춘천 665-5810 ●삼척 73-9942 ●원주 732-0636 ●강릉 82-4250 ●청주 751-8304 ●충주 57-2288 ●김해 41-2152 ●동해 32-1557 ■대전 253-4720(동구) 626-0635(중리동) ●천안 62-9940 ●온양 546-2831 ●당진 362-0600 859-1755 ●공주 54-2625 ●논산 34-0088 ●장항 58-1119 ●홍주 647-9653 ●제천 45-5386 ■광주 673-3434(북모동) 523-2042(양림동) ●목포 78-3342 ●순천 745-1521 ●여수 43-2167 ●여천 43-7202 ●군산 43-3441(영산동) 63-4278(월명동) ●전주 253-5552(완산동) 78-1930(덕진동) ●정주 536-3212 ●이리 857-5326 ■부산 553-5262(초읍동) 866-8050(동래동) 553-8021(불암동) 206-3627(사하구) 646-0110(남구) ●부산 42-0918(합포구) 41-4476(동래구) ■광원 62-0745(가좌동) 81-6134(중앙동) 99-3120(서창동) ●울산 69-9415(남구) 2-1511(중구) 242-4658(이상구) ●거제 687-3675 ●포항 73-2625 ■대구 422-8491(고동) ●구미 456-4810 ●상주 34-3089 ●영주 32-8955 ●경주 42-2651 ●김천 2-9651 ●문경 52-9925 ●영동 ●울진 ●김제 ●익산 ●정읍 52-8879 ●무안 ●장흥 ●남원 ●화천 ●포천 ●서귀포 32-9421 ■대전지원 추가모집 ●과천 ●의왕 ●안양 ●부천 ●시흥 ●김포 ●파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수원 ●안산 ●시흥 ●부천 ●인천 ●강화 ●옹진 ●서울 ●성남 ●하남 ●광명 ●과천 ●의왕 ●안양 ●군포 ●부천 ●시흥 ●김포